# 동구청~조선대 유물 발굴 마무리…11월 도로 공사 재개

## 광주 동구, 기와 등 유물 42점 매장유산 공고…고려시대 '대황사지'·'광주읍성' 사료 발굴 성과

관심을 모았던 광주시 동구 동구청과 조선대 사이 도로확장 공사 구간에서 진행된 문화유산 발굴 작업이 마무리됐다.

발굴 결과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고려시대 '대황사지'(11세기 창건 추정)와 '광주읍성'(1378년 축성)과 관련된 사료들이 출토돼 이들의 권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시 동구는 최근 광주 동구청~조대사거리 간 도로 확장부지인 서석동 27-3번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물 42점에 대한 매장유산 공고를 올렸다.

출토된 자기, 기와 등 유물에 대해 기록보존을 마친만큼 소유권 주장을 접수받는다는 내용의 공고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부터 동구청~조선대 입구 도로(왕복 4차로)의 폭을 기존 20m에서 30m(동구청 방향 3차로·조선대 방향 2차로)로 늘리고 인도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다. 총사업비로 1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해당 부지에 광주시 문화자료 제20호인 광주읍성 유허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매장 문화유산 시굴·정밀 발굴 용역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고려시대 12세기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그릇(완)과 조선시대 17~18세기에 제작된 도기, 기와 등 총 42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대규모 건물지, 우물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사이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수혈(땅에 구덩이를 파서 무덤·주거지 등을 만든 흔적) 6기, 구(토목·주거지 등 흔적) 4기, 다수의 주혈(기둥 구멍), 석축 담장 1기 등이 발굴됐다.

발굴을 담당한 대한문화재연구원측은 이번 조사가 고려시대 '대황사지'의 규모와 광주읍성의 범위 등을 확인하는 역사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발굴된 유물 등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도로 확장공사 부지에서 발굴된 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4~5월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산길 확장 부지인 동구 남동 99-3번지(인쇄의 거리) 일대 유적 현장조사에서 자기, 기와 등 유물 30점이 발굴<6월 5일자 광주일보 1면>됐다. 이곳에서는 사찰 건물에 쓰였음을 뜻하는 만(卍)자(길이 6㎝, 너비 4㎝)가 새겨진 명문기와가 발굴돼 대황사지 권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동구청~조선대 도로확장 부지에서는 중요문화재가 발굴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 보존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발굴 현장에서는 후대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매립한 건축폐기물 등이 같이 발굴되는 등 훼손이 이뤄져 현장 보존 가치가 더욱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발굴 현장을 흙으로 덮고 도로 확장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애초 공사 완료 예정시기는 내년 12월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6일 광주시 동구 서석동 동구청~조선대 간 도로확장 공사 현장이 매장 문화유산 시굴·정밀 발굴 용역 조사 작업으로 인해 멈춰 서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미쓰비시 강제노역 순천 출신 김성주 할머니 별세

일제강점기 꽃다운 나이에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김성주 할머니<사진>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또 한 명의 전남 출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과 전범기업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6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차 손해배상 소송 원고로 나선 김 할머니가 전날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순천남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는 13살이던 졸업 직후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갔다. 학교 대신 나고야 미쓰비시 공장으로 끌려간 그는 해방 후인 1945년 10월까지 1년5개월간 지옥같은 날을 보냈다.

장갑조차 끼지 않고 금속판을 절단하는 일을 하다 왼쪽 손가락 하나가 잘렸고, 1944년 12월 일어난 도난카이 대지진 때는 함께 갔던 친구 6명이 죽었다. 자신도 무릎뼈가 튀어나오는 중상을 입었다.

그에 이어 동생 김정주(93)할머니도 1945년 2월 일본 후지코시 공장으로 강제 동원돼 자매가 같은 아픔을 겪었다.

그는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했음에도 임금 한 푼 받지 못한채 광복 후 고향에 돌아왔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본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일본군 위안부'로 여겨질까 전전긍긍했고, 남편으로부터 인신모욕과 구박을 받아야 했다. 그는 "내 평생 가슴 펴고 큰 길 한번 다녀 보지 못하고, 뒷질(뒷길)로만 살아왔다"고 회상했다.

뒤늦게 용기를 낸 그는 일본의 사과를 받기 위해 활발한 활동에 나섰다. 1992년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일명 '천인소송'에 참여했으며, 지난 2018년 11월 29일 결국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3월 서울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3자 변제를 거부한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일본의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해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가 사죄를 받아야 하겠느냐? 일본에게 옛날 몇십 년을 기죽고 살아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김성주 할머니의 빈소는 경기 안양시에 있는 안양장례식장 8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7일 오전 7시 장지는 광주시 북구 동림동 새로나추모관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시교육청, 상고 출신 9급 뽑는다

## 내년부터 수습직원 선발…6개월 뒤 채용 결정

광주시교육청이 내년에 처음으로 광주지역 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9급 수습직원으로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을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수습직원 선발은 지역 인재에게 취업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 처음으로 시행된다.

지역 인재 9급 수습직원은 광주지역 상업계고 졸업(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자가 대상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선발전형을 거쳐 6개월간 수습 근무기간을 부여한 뒤 임용심사 결과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시교육청이 공고한 '상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 계획(안)'에 따르면 수습직원 선발직렬은 교육행정 부문이다. 선발예정 직렬 관련 전문교과는 경영·금융 으로, 선발 인원은 채용연도 동일 직렬 선발인원의 2% 범위다. 시험 과목은 국어·영어·한국사(과목당 20문항, 문항당 5점 배점)이다.

학교장 추천인원은 학교당 5명 이내다. 확정한 시험일정과 선발인원은 내년 3월에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시교육청은 지역인재 선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난 2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에서 채용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상업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 전남 소방관들 식사는 맘에 드십니까?

## 급식 단가 4068원 '전국 최하위 수준'…영양사도 없어

전남지역 소방관들의 급식 단가가 4068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영양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 을)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소방서의 1식(食) 단가는 4068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1식 단가가 가장 적게 책정된 곳은 대구로 3112원이었으며, 경남(3852원), 전북(3920원) 순이었다. 광주는 6056원으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고 가장 높은 곳은 인천(6887원)으로 집계됐다.

또 전남지역 소방서는 영양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명도 배치되지 않았다. 서울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부(26명), 경남(19명) 순이었다. 광주는 6명이었다.

지역별 급식단가가 다른 이유는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 근거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에서 일반 행정공무원은 한 달 20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3교대 근무자인 현업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단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와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남경찰청도 중국산 CCTV 설치 심각

## 89대 설치 '전국 4번째'

전남경찰청이 청사에 전국 경찰청 중 4번째로 많은 중국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도 경찰청의 CCTV 현황'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에 총 89대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CCTV는 해킹 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전방 군부대에 설치된 CCTV 1300여대가 중국산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경기경찰청이 143개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각 95개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은 4대만 설치됐지만, 간첩과 이적사범을 수사하는 안보수사대 사무실에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청과 소속기관, 시·도 경찰청만 대상으로 조사해도 상당한 수의 중국산 CCTV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관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면 그 수는 최소 천 단위 이상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겨자씨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교회)

총 장 김경윤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모집단위 | | 모집인원 | |
|---|---|---|---|
| 계열 | 학과 | 수시 | 정시 |
| 인문사회 | 신학과 | 30 | 5 |
| | 한국어교육학과 | 1 | 1 |
| | 복지상담융합학부 | 24 | 5 |
| 사범 | 유아교육과 | 8 | 2 |
| 예능 |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실용음악학 전공) | 21 | 8 |
| 총계 | | 84 | 21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24. 9. 9.(월) ~ 13.(금) · 전 형 일 : 2024. 10. 7.(월)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 형 일 :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www.kwangshin.ac.kr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